

“명량” 속 이순신이 불의 기운이라면 ‘한산’은 물

영화 ‘한산’ 이순신 역 배우 박해일 신중한 전략가 면모에 초점 전 세계 관객 사로잡을 영화됐으면 김한민감독 ‘임진왜란 드라마 계획’

“제가요? 왜요? 제가 장군감입니까?”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 박해일은 김한민 감독에게 작품을 제안받았을 당시 이렇게 되물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당황스럽고 의아했기에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다”고 회상했다.
“감독님이 웃으시면서 ‘네가 최민식 선배 같은 그런 장군감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번 영화에서 보여줄 이순신은 주도면밀하게 전략을 짜서 수군들과 함께하는, 압도적 승리의 쾌감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장수이자 덕장이라고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7일 개봉하는 ‘한산’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한산해전을 그렸다.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은 조선의 역사를 넘어 명나라까지 침략하려던 왜군을 상대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박해일은 실존 영웅 이순신을 연기한다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회상했다. 그는 “흥행 성적에 대해 고민할 겨를도 없었을 정도로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엄청났다”고 말했다.
“첫 촬영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판옥선 위 지휘하는 공간에 혼자 있는데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진 느낌이었죠. 제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단단한 산이 돼서 작품 속 모든 캐릭터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은 국내 최고 흥행작 ‘명량’ (2014)의 후속작이자 프리퀄이다. 배우 최민식이 연기한 ‘명량’ 속 이순신은 결단력과 용맹함이 돋보이는 리더였다면 ‘한산’ 속 이순신은 신중한 전략가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
박해일은 “최민식 선배와 저라는 배우는 다른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작품을 대했다”면서 “‘명량’과 결을 똑같이 가져갔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제일 차분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생각했어요. ‘명량’ 속 이순신이 불같은 기운으로 딱 버티고 전투에 임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배우들이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물의 기운으로 작품에 임하려 했습니다.”

‘한산’ 속 이순신은 ‘명량’에 비해 분량과 대사로 적고 극적인 감정변화도 없다.
박해일은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장면에서도 그의 그림자가 계속 구현됐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굳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하면서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려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지락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려 했죠.”
이순신을 ‘수양을 많이 쌓은 선비’라 정의한 그는 연기를 위해 ‘마음 수양’에 힘썼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님이 수양을 많이 쌓은 군자이자 도인 같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수양부터 하자고 생각했어요. 동네 절에 가서 앉아서 염불 소리, 종소리, 풍경 소리도 들었죠. 촬영 들어가서도 항상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인물처럼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관객분들이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셨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해외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거든요. 전 세계 관객이 좋아할 만한 작품으로 ‘한산’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노랑: 죽음의 바다’를 ‘한산’과 함께 찍었다. ‘한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이순신으로 출연한 배우 박해일.

산’ 촬영을 마친 뒤 2개월여 동안 노랑해전에 잠정 한 명나라 배를 제작했다. 김 감독은 “‘한산’을 거쳐 ‘노랑’에 이르면 조선 수군의 진법이 완성된다”며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힘과 우리의 혼이 응축한 상징물”이라고 말했다.
이순신 3부작을 마무리한 뒤 임진왜란 7년사를

드라마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화에서는 이순신과 전투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선조와 류성룡, 명나라 장수 등을 주역으로 임진왜란의 정치외교사를 다룬 드라마를 준비 중입니다. 물론 원동력은 이순신의 매력입니다.”
/연합뉴스

데뷔 21년 만에 첫 주연 박병은 “어머니 통해 인기 실감”

tvN ‘이브’ 대기업 회장 강운겸 역

“조연만 하다가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어머니가 유기농만 드신다는 점?”
tvN 드라마 ‘이브’ 종영을 기념해 만난 박병은은 “요즘 어머니가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아주머니들이 저 좋다고 난리라네요”라며 웃었다.
2000년 MBC ‘신귀공자’로 연기를 시작한 박병은은 드라마 ‘금쪽같은 내 새끼’, 영화 ‘오로라 공주’, ‘연애의 온도’ 등에서 단연과 조연을 맡아왔다. ‘이브’는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박병은은 ‘이브’에서 재계 1위 대기업 회장 강운겸 역을 맡아 사랑에 눈이 먼 남자의 애절함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인물 특성상 대사량이 적었고 감정 표현의 폭도 넓지 않았지만, 욕망과 원망, 불안과 분노를 눈빛 연기로 담아냈다.
강운겸은 이라엘(서예지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부모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라엘은 그를 유혹하고 조종하다가 끝내 파멸로 이끈다.
박병은은 “강운겸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랑에 빠질 만하다”며 “운겸의 무모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강운겸은 혼외자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학대



드라마 ‘이브’에서 데뷔 21년만에 주연 맡은 박병은.

까지 당하면서 자라요. 처절하게 외롭고 상처투성이인 운겸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 라엘이죠.”
강운겸은 이라엘의 수상쩍은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지만 허술한 변명을 믿고 넘어가준다.
박병은은 “처음 찾아온 사랑이어서 진정한 사랑

이라고 믿고 싶었고, 흠이 보이더라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현실을 부정했던 것”이라며 “운겸은 그런 첫사랑이 떠나가면 다시는 사랑을 못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운겸에게 강한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감정선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배우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가 정말 축복받은 캐릭터”라고 덧붙였다.
또 강운겸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었기에 캐릭터 몰입이 더욱 쉬웠다고 했다.
“외로움이라면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가끔 혼자 남시하러 산골짜기로 일주일씩 떠나요. 공상맛게 라면 끓여 먹다가 외로움을 못 견디겠으면 속세로 나오곤 하죠.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외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10대 시절부터 배우를 꿈꿔왔다는 박병은은 영화 ‘암살’ (2015)에서 일본인 장교 카와구치를 맡으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긴 무명 세월을 보냈지만 박병은은 단 한 번도 “배우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무명일 때에 비해 이제 제 소개를 좀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에 친구 장인어른께 사인해드리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분들은 원래 아무도 저를 모르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웃음)”
/연합뉴스

김은숙 작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 극본...송혜교 출연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주로 로맨스 작품을 집필해온 김은숙 작가가 이번에는 복수극에 도전한다.
넷플릭스는 김은숙 작가가 드라마 ‘비밀의 숲’을 만든 안길호 감독과 손잡고 새 시리즈 ‘더 글로리’를 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다.
배우 송혜교(사진)가 끔찍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기해자와 방관자 모두를 향해 온 생을 걸고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인 문동은 역을 맡았다. 문동은은 분노와 증오로 점철된 인물이다. 이도현은 비밀스러운 사연을 지닌 주여정으로 분해 밝은 모

습 뒤 감춰진 복잡한 내면을 연기하며, 임지연은 과거 학교폭력의 주동자이자 백악의 시간으로 살아온 박연진으로 분한다.
염혜란은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인 강현남, 박성훈은 박연진과 함께 동은의 삶을 파괴한 전재준, 정성일은 박연진의 남편이자 재평건설의 대표인 하도영을 연기한다. 연출은 ‘해피니스’, ‘청춘기록’,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을 만든 안길호 감독이 맡았다.
/연합뉴스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10%대 시청률 종영

서현진이 카리스마 넘치는 변호사로 분한 SBS 금토드라마 ‘왜 오수재인가’가 10%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2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왜 오수재인가’ 최종회 시청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최종회에서 오수재(서현진 분)는 TK로펌 대표 최태국(허준호)의 추악한 민낯과 끔찍한 악행을 세상에 알렸다.

오수재는 최태국의 심복이었던 비서실장의 마음을 돌려 최태국이 전나정, 박소영, 홍석팔을 죽임으로 떠민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여기에는 한수그룹 회장 한성범, 유력 대선후보 이인수가 연루돼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10년 전 억울하게 악부동생 살인 혐의를 뒤집어쓴 공찬(황인엽)의 사건도 진실이 드러나면서 진범인 최태국 일당의 아들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